

Research Center

2015년 6월 15일

투자전략 Daily

- 투자전략
메르스 이후의 시장 : 금리인하, 추경, 규제완화
- 이머징마켓 동향
정책기대, 경기우려 등에 주요 이머징 혼조세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이수페타시스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KCC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전기전자, 음식료 · 담배, 고려아연, LG이노텍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자산배분전략 | 노근환 ☎ 3276-6226
투 자 전 략 | 박소연 ☎ 3276-6176
시 황 분 석 | 김대준 ☎ 3276-6247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계 량 분 석 | 안 혁 ☎ 3276-6272
파 생 / E T F | 강송철 ☎ 3276-6181
스몰캡전략 | 정훈석 ☎ 3276-6232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채 권 분 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 트 | 김기명 ☎ 3276-6206

truefriend 한국투자 증권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6/5(금)	6/8(월)	6/9(화)	6/10(수)	6/11(목)	6/12(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68.10	2,065.19	2,064.03	2,051.32	2,056.61	2,052.17	
	등락폭	-4.76	-2.91	-1.16	-12.71	5.29	-4.44	
	등락종목	상승(상한)	279(2)	461(16)	524(9)	368(16)	428(6)	314(8)
		하락(하한)	530(1)	351(2)	298(1)	439(1)	402(1)	498(0)
	ADR	87.64	86.11	85.02	85.20	83.87	80.66	
	이격도	10 일	98.44	98.69	99.01	98.66	99.18	99.26
		20 일	98.19	98.10	98.12	97.62	98.01	97.95
	투자심리	40	30	30	30	30	20	
	거래량 (백만 주)	394	394	422	427	457	384	
	거래대금 (십억 원)	6,197	5,601	5,606	6,260	7,629	5,960	
코스닥	코스닥지수	707.27	716.43	722.51	718.23	717.00	712.40	
	등락폭	2.71	9.16	6.08	-4.28	-1.23	-4.60	
	등락종목	상승(상한)	279(18)	461(32)	524(19)	368(25)	428(15)	341(11)
		하락(하한)	530(2)	351(4)	298(4)	439(1)	402(3)	657(8)
	ADR	92.57	89.98	89.51	90.66	87.48	83.81	
	이격도	10 일	100.02	101.28	101.94	101.06	100.77	100.11
		20 일	100.55	101.60	102.24	101.41	101.06	100.32
	투자심리	40	30	30	30	30	20	
	거래량 (백만 주)	558	496	507	563	506	475	
	거래대금 (십억 원)	4,278	3,772	4,001	4,133	3,862	3,805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415.0	1,378.4	1,148.6	265.7	134.3	291.2	54.5	18.5	384.415	50.7
	매도	3,193.3	1,463.3	1,290.6	272.4	135.4	349.6	108.9	38.6	385.7	45.5
	순매수	221.7	-84.9	-142.0	-6.7	-1.2	-58.4	-54.4	-20.1	-1.3	5.2
	6월 누계	1,104.0	20.5	-1,176.8	-606.9	-351.0	-73.1	-102.1	-458.0	414.2	52.3
	15년 누계	-99.2	9,449.5	-9,686.4	-5,042.9	-1,024.1	-6,285.5	-782.9	-449.5	3,898.5	336.1
	코스닥	매수	3,355.8	226.3	227.4	44.5	24.7	85.4	23.0	7.5	42.2
매도		3,357.1	238.3	213.0	64.6	21.9	46.5	25.2	6.2	48.6	29.1
순매수		-1.4	-12.0	14.4	-20.0	2.8	38.9	-2.2	1.3	-6.4	-1.0
6월 누계		-235.9	64.2	221.3	-52.7	97.6	160.5	10.4	-11.6	17.1	-49.6
15년 누계		1,062.4	-209.6	117.0	-137.8	230.5	147.4	-55.0	-105.3	37.2	-969.8

메르스 이후의 시장 : 금리인하, 추경, 규제완화

2015년 Target KOSPI	2,300pt
12MF PER	9.43배
12MF PBR	0.91배
Yield Gap	8.8%P

- ▶ 메르스, 감소하는 우려
- ▶ 추경 관전포인트 : 세출 추경
- ▶ 투자전략 : 규제완화와 내수

메르스, 감소하는 우려
 : 봄비는 모델하우스와
 영화관

■ 메르스, 감소하는 우려

지난 주말 가족들과 외식차 패밀리 레스토랑을 방문했는데, 원래 그리 사람이 많지 않은 지역인데도 주차가 너무 힘들었다. 알고보니 바로 인근에 곧 분양 마감하는 오피스텔 모델하우스가 개관, 방문객 차량들이 도로를 꽉 막고 있었던 것이었다.

구경차 들어가 보니 양쪽 벽면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1.5%로 인하!’라고 쓰여진 일간지 신문기사가 대자보마냥 붙어 있고, 검은 정장을 갖춰 입은 상담직원들이 바빠 손님을 받고 있었다. 마스크를 쓴 사람도 간간히 있긴 했지만, 그야말로 문전성시. 모델하우스에서는 더 이상 메르스에 대한 공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쥬라기 월드의 흥행 돌풍에 극장방문객 수도 증가하고 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쥬라기 월드는 개봉 3일만에 100만명이 관람했고 덕분에 매출액과 관람객수 모두 메르스 이슈 발생 이전인 5월 셋째주 수준을 완전하게 회복하였다.

<표 1> 금요일과 토요일 영화 관람객 수 : 5월 셋째주 수준을 완전하게 회복

	매출액(원)	관람객수(명)	매출액(전주대비)	관람객수(전주대비)
5월 셋째주	11,103,872,676	1,333,477		
5월 넷째주	10,011,702,412	1,219,445	-9.8%	-8.6%
6월 첫째주	8,592,007,969	1,013,112	-14.2%	-16.9%
6월 둘째주	11,941,356,527	1,371,613	+39.0%	+35.4%

주 : 6월 14일(일) 데이터는 아직 집계가 불가해 금요일과 토요일 데이터로 합산해 비교

자료 :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한국투자증권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지난 주말 동안 메르스 확진자는 19명이 추가됐고, 3명이 퇴원해 환자 증가 속도는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 들었다. 안타깝게도 세 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왔지만 모두 지병(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고혈압)이 있는 60~70세 이상의 고령자라 건강한 일반인 성인의 경우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는 의학계의 의견이 점차 세를 얻어가고 있다.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본다. 이번 주는 1) 상하한가 제한폭 30%로 확대 시행 2) 17일 FOMC 회의 3)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마무리 등 이슈가 많은 상황이나 상당부분 가격에 선반영 되어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 말부터 서서히 안정을 찾아 나갈 것이라는 당초 전망에는 변화가 없다.

금리인하 후 추경 시행
가능성도 확산

■ 추경 관전 포인트 : 세출 추경

메르스 확산에 따른 내수 타격 우려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금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의 경제상황, 메르스 영향 등을 보아가면서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사실 추경은 법적으로 집행 요건이 있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89조에 의하면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메르스 확산이 말만 무성했던 추경 집행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계기가 된 셈이다.

그러나 좀 더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는 추경’보다 정부가 직접적인 지출을 하게되는 ‘세출 추경’ 액수가 많아야 한다. 실제로 역대 추경 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예산은 세입결손 보전예산(36%)이고 재해대책관련 예산(9.4%)과 법정소요예산(8.4%), 서민/중산층 지원예산(8.2%) 등은 크지 않았다. 막대한 규모의 추경에도 불구하고 경기진작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은 사실일 때문이다.

실제 추경 규모 2013년
수준 뛰어 넘어야 경기에
실질적으로 긍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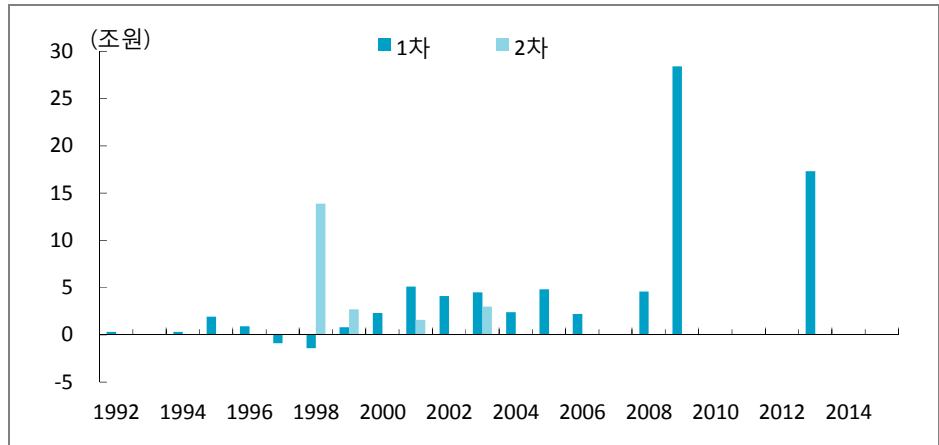
올해도 최소 7조원의 세입 결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효과를 보려면 2013년 수준을 뛰어넘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해 보인다. 2013년에는 17조 3천억원의 추경이 집행됐는데 이 중 12조원이 세입 부족분을 보충하는데 쓰였고, 실질적인 세출 추경은 5억 3천억원 정도였다. 게다가 연말까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3조 9천억원에 달해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할 수 밖에 없었다. 만약 세입 결손을 보전하는 추경으로 약 7조원, 실질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출 추경이 8~10조원 수준으로 편성된다면 하반기 내수경기 반등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2> 추가경정예산의 법적 근거

법안	구체적 내용
헌법 56 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 89 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정리: 한국투자증권

[그림 1] 역대 추가경정예산 집행 추이



자료: 한국투자증권

<표 3> 역대 추경 규모와 편성의 구체 내역

연도	총계		세출추경		세입결손		편성내역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998	1.4	13.9	1.4	6.7	-	-7.2	1차 : 세입결손 보전, 금융구조조정 지원 2차 : 세입결손 보전 및 실업/경기대책
1999	0.8	2.7	0.8	2.7	-	-	1차 : 실업대책 및 어업구조조정 지원 2차 : 중산층/서민생활안정대책 재해 지원
2000	2.3	-	2.3	-	-	-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및 의약분업, 구제역, 산불 등 현안관련 소요
2001	5.1	1.6	5.1	1.6	-	-	1차 : 지역건강보험재정 의료보호 국고지원, 재해대책예비비 증액 2차 : SOC 등 건설투자, 수출/중소기업 지원, 쌀값안정지원, 9/11 테러사태 관련 지원
2002	4.1	-	4.1	-	-	-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대책 지원
2003	4.5	3	4.5	3	-	-	1차 : SOC 등 건설투자, 서민/중산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2차 :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대책 지원
2004	2.4	-	1.8	-	0.6	-	세입결손 보전 및 서민생활안정, 중소기업 지원
2005	4.8	-	0.6	-	4.2	-	세입결손 보전 및 의료생계급여 부족분, 주한미군기지 이전부지매입비 지원
2006	2.2	-	2.2	-	-	-	태풍 예위니아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대책 지원
2008	4.6	-	4.6	-	-	-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대책
2009	28.4	-	17.2	-	11.2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유지, 창출 및 민생안정대책
2013	17.3	-	5.3	-	12	-	세입결손 보전 및 민생안정. 경기회복을 위한 경기대책

정리 : 한국투자증권

■ 투자전략 : 규제 완화와 내수

규제완화와 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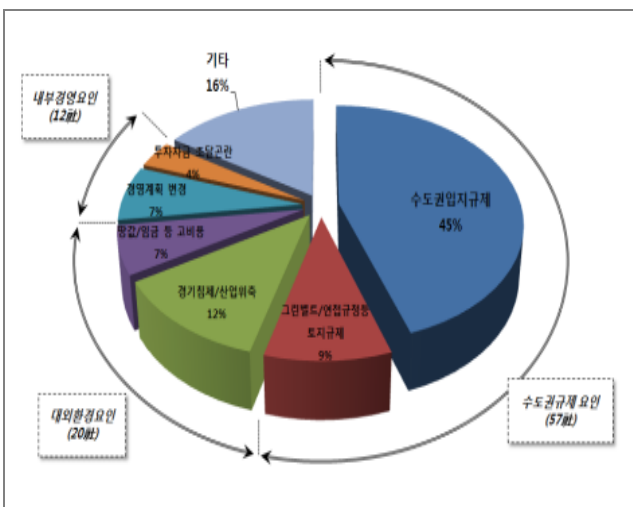
6월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시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하반기 경기를 확실하게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섰지만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 증가에 따른 것이라 관리가 가능하다’면서 당초 7월 말 일몰 예정이었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를 1년 더 연장기로 결정했다. 그외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및 감독규정 개선 ▲ 펀테크 및 벤처투자 활성화 등 자질구레한 것에서부터 ▲ 수도권 규제완화와 같은 개발 계획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까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최근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연구원은 6월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6년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이 공장 증설 투자시기를 놓쳐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3조 3천억원에 달한다’, ‘수도권 지역에서 빠져나간 해외직접투자액(Outward FDI)이 외국인직접투자액(Inward FDI)의 2.6배에 달한다’면서 수도권 규제가 수도권 제조업 위축의 원인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할 경우 수도권 기업들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소득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기존 주장과 달리 오히려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해외이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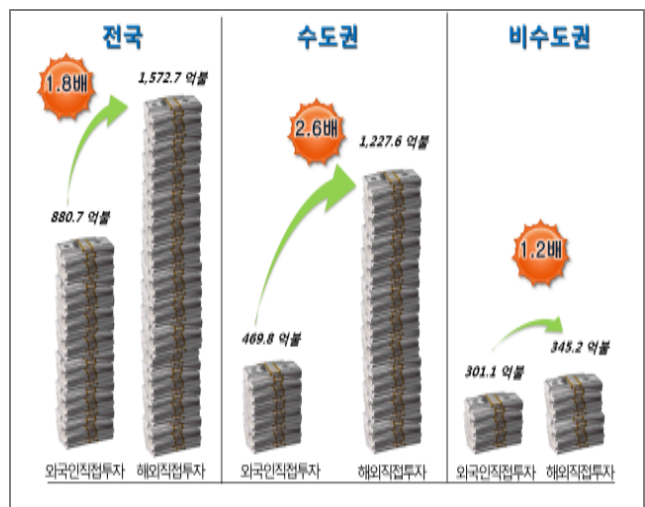
물론 한국경제연구원은 대표적인 친기업, 보수적 성향이 강해 이러한 주장이 대체적인 컨센서스라고 보기엔 한계가 있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현 정부 입장에서든 매우 부담스러운 의제다. 그러나 경기부양의 당위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림 2] 투자 철회의 이유 : 수도권 규제 요인이 60%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그림 3] 수도권 지역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직접 투자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오늘부터 시행되는 가격제한폭 30% 확대(과생상품: 지수상품 20%, 주식상품 30%)와 관련해 세간의 우려와 달리 시장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사 증권업종 담당 이철호 위원은 각 증권사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신용공급 단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1) 신용보증금률은 모든 회사들이 기존 그대로 유지했고 2) 담보유지비율, 반대매매시점, 반대매매수량산정기준 등은 일부 변화가 있긴 하지만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조언했다. 추후 미국 금리인상 등 금융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관찰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어수선한 6월 장이었지만 서서히 악재는 완화될 것으로 본다. 어찌보면 이번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와 함께 건설, 유통, 패션, 여행, 증권 등 내수 경기 회복시 수혜가 가능한 산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내내 긍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림 4] iShare MSCI Korea ETF : 중기 지지선까지 하락



자료: Bloomberg

■ Appendix 1 : 전주 동향 및 기업실적 추정치 변경

코스피는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 시장 편입 보류,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와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등 호재와 악재가 뒤섞인 가운데 2,050선에서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 6,600억원, 선물 1만 4천 계약 순매도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제한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주 대비 3.6원 상승한 1,114.7원에 마감했고 국고채 3년물은 금통위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2bp 상승한 1.76%을 기록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이번 금통위의 금리 인하가 사실상 연중 마지막 인하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고, 통신과 기계 역시 반등했다. 반면 유가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아시아항공(-7.5%) 등 항공주는 약세를 보였다. 한편 전주 합병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던 삼성물산(-10.1%)과 제일모직(-7.6%)은 KCC(-5.5%)의 삼성물산 자사주 취득,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합병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전망이 불투명해지며 하락했다.

지난 주에는 IT소프트웨어, 증권 업종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된 가운데 운송, 반도체 업종 등의 추정치는 하향됐다.

<표> 업종별 주간 EPS 변화율 및 등락을 변화

Name	수익률 (%)			12MF EPS CHANGE (%)		12MF Valuation (X)	
	1W	1M	YTD	1W	1M	PER	PBR
에너지	3.28	2.77	30.54	3.92	8.19	9.03	0.78
소재	1.11	-4.00	16.86	0.47	0.42	11.84	0.82
화학	2.10	-0.37	42.81	1.37	4.43	12.95	1.14
금속 및 광물	2.68	2.43	21.32	-0.24	2.35	13.82	1.50
산업재	-2.31	-1.62	7.89	-0.69	-1.95	17.13	1.10
자본재	-1.89	-0.36	11.93	-0.28	-0.50	17.77	1.03
건설	-4.76	-0.40	15.88	-0.63	1.77	13.65	0.82
조선	-3.29	-11.30	-5.62	-0.80	-12.91	22.56	0.62
상업서비스	-0.80	-0.84	11.60	-0.01	2.07	18.45	2.58
운송	-5.06	-8.76	-12.72	-2.64	-8.41	13.99	1.48
경기소비재	0.32	-6.08	4.49	-0.22	0.70	9.18	1.00
자동차/부품	0.43	-13.13	-14.87	-0.32	-0.37	5.53	0.65
내구소비재/의류	1.28	4.27	44.53	-0.14	5.44	25.21	3.40
소비자 서비스	-1.03	-0.78	26.52	0.04	4.19	18.93	3.24
미디어	0.06	-5.74	28.03	-0.02	0.78	17.50	1.63
유통	-1.17	-0.59	13.51	0.31	2.46	12.90	0.79
필수소비재	-1.29	-3.31	25.92	0.16	1.18	19.59	1.98
음식료/담배	-0.42	-1.42	28.71	0.20	1.14	19.15	1.80
생활용품	-6.00	-13.14	16.13	-0.05	1.25	22.70	5.04
의료	2.71	19.41	87.66	-0.53	0.46	31.86	2.80
제약/바이오	2.72	19.44	87.97	-0.53	0.46	31.86	2.80
금융	1.24	-4.68	3.39	0.25	2.03	10.14	0.67
은행	2.06	-6.88	-1.81	0.15	0.28	7.99	0.49
기타금융	0.22	10.72	21.54	-0.14	0.82	10.21	0.69
증권	0.21	-4.73	34.98	0.54	6.74	12.17	0.97
보험	0.72	-0.81	-1.42	0.33	3.46	13.02	0.91
IT	-3.68	-2.79	-4.31	-0.89	-0.69	8.66	1.11
소프트웨어	1.85	1.66	-6.36	3.77	6.72	23.33	3.89
하드웨어	-0.88	-6.13	-0.24	-0.46	-0.94	12.81	0.94
반도체	-4.80	-3.16	-3.33	-1.31	-1.39	7.29	1.01
디스플레이	-6.48	-6.62	-16.59	-0.36	0.40	6.74	0.77
통신서비스	3.47	-0.71	-6.54	-1.15	-0.90	10.15	1.02
유틸리티	-1.18	-3.54	4.77	0.08	1.91	5.19	0.52

주 : 수익률은 전 주 마지막 거래일, 추정치는 그 직전일 종가 기준
 자료: Wisefn,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2 : 주간 글로벌 업종별 등락률 상위/하위

지난 주 Bloomberg World Index 업종 중 상승률 상위는 사무실 가구(+4.6%), 석탄(+3.0%), 음료(+3.0%), 유통 및 도매(+2.5%), 화장품/개인용품(+2.5%) 업종이 차지했다. 반면 조선(-1.8%), 엔지니어링/건설 (-1.7%), 호텔/카지노(-1.3%), 파이프라인(-1.2%), 반도체(-0.8%) 업종은 부진했다.

지난 주 역시 상승률 상위 업종 대부분이 중국 시장 강세와 연관이 높았다. 2주째 석탄 업종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음료/유통 업종에서도 상승률 상위에 중국 기업들이 다수 포진했다. 장수양허맥주(+13.8%), 우량이에이빈(+9.7%), 구이저우 모우타이(+4.8%) 등 백주 생산 업체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유통 업종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강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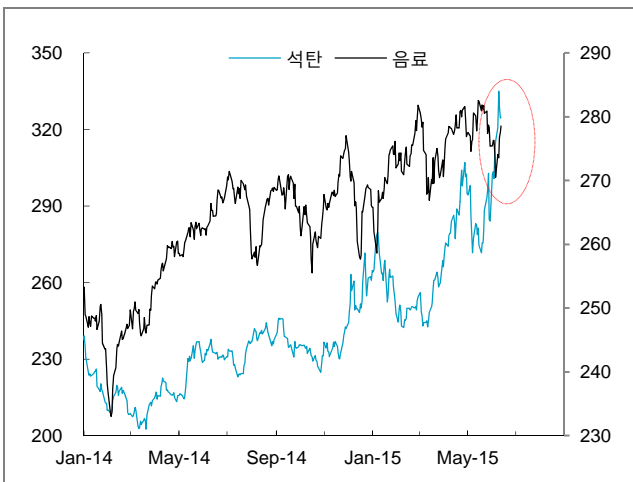
한편 지난 주는 일본 화장품 및 개인용품 기업의 강세가 눈에 띄었다. 아모레퍼시픽(-1.3%), LG생활건강(-6.0%) 등 국내 화장품 업종이 약세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유니참(+3.4%), 시세이도(+2.9%), 카오(+1.7%) 등이 일제히 상승했다. 국내 화장품 업종이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 우려에 하락한 반면, 일본 기업들은 엔저로 인한 요우커 증가와 가격 경쟁력 강화가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Bloomberg World Index 업종별 전주대비 수익률 상승/하락 상위

상승 상위	수익률 (%)	하락 상위	수익률 (%)
사무실 가구	4.61	조선	-1.76
석탄	2.99	엔지니어링 & 건설	-1.68
음료	2.97	호텔/카지노	-1.32
유통 및 도매	2.54	파이프라인	-1.24
화장품 및 개인용품	2.49	반도체	-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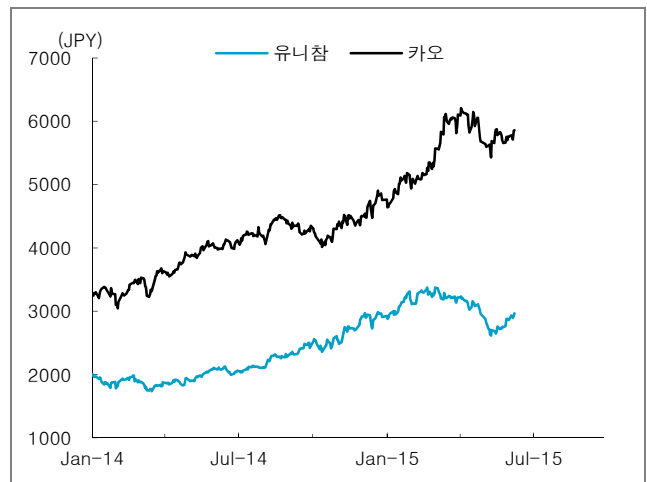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블룸버그 석탄 및 음료 업종 지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일본 주요 화장품 및 개인용품 기업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3 : 주간 글로벌 주식형, 채권형 펀드 유출입

지난 주 선진국 주식형 펀드는 순유입세를 기록했지만 신흥국 주식형 펀드는 2주만에 큰 폭의 순유출세로 전환했다. 선진국(International, Pacific) 펀드군에는 23.8억 달러의 순유입세를 보인 반면, 신흥국(Asia ex-Japan, GEM) 펀드군에는 87.4억 달러 순유출세가 관찰됐다. Asia ex-Japan 펀드군에서는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순유출세를 기록했고, 한국 역시 자금 유출 기조가 이어졌다.

채권형 펀드는 6월 FOMC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모든 펀드군이 순유출 기조를 보였다.

〈표〉 글로벌 주식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분	지역	자산규모	한국비중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5년
선진국 투자펀드	International	2,148,340	1.4%	2,296.7	13,796	68,788
	Pacific	54,548	5.7%	82.8	607	2,067
신흥국 투자펀드	Asia ex-Japan	412,434	14.2%	-7,900.2	-99	-16,312
	Global Emerging	460,709	9.9%	-841.4	-1,763	-4,943
	Latin America	24,937		-443.7	-1,039	-4,622
	Europe/Middle East/Africa	45,485		-74.9	-196	-213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표〉 글로벌 채권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분	지역별/시장별	자산규모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5
전체 채권 펀드 (미국+신흥국+인터내셔널+하이일드)		3,577,084	-5,867.6	-1,903.4	124,457.6
신흥국 채권 펀드 (EM bond totals)		255,821	-795.8	-1,515.6	1,242.8
	- EM 경화(\$) 채권	111,944	-495.8	-1,053.0	2,385.5
	- EM 신흥국 통화 채권	94,730	-296.9	-719.4	-3,005.5
	- EM Blend 통화 채권	49,147	-3.1	256.7	1,862.9
인터내셔널 채권 펀드		1,152,790	-1,825.9	-2,659.9	34,144.4
하이일드형 채권 펀드		491,362	-2,942.8	-1,416.8	15,699.8
미국 채권 펀드 (US bond totals)		1,677,111	-303.1	3,689.0	73,370.6
	- Municipal	363,579	-452.0	-356.4	5,261.9
	- Floating Rate	107,409	-184.6	106.6	-3,695.5
	- Inflation Protected	52,884	-106.4	176.8	2,949.1
	- Inter. Term Corp.	30,796	-100.5	224.1	2,327.1
	- Inter. Term Funds	406,219	1,456.1	5,342.2	33,140.0
	- Inter. Term Gov.	27,540	46.2	436.1	1,828.6
	- LT Bond	7,024	-54.5	-90.3	695.7
	- LT Corp.	34,619	-648.6	-758.4	4,750.6
	- LT Gov.	15,088	-463.1	-633.7	-1,911.0
	- MBS	85,794	141.6	663.9	7,152.0
	- ST Bond	223,984	195.4	-1,027.1	-9,174.0
	- ST Corp.	32,984	162.5	325.8	70.0
	- ST Gov.	35,697	-134.5	-3,196.8	-996.9
	- Total Return	253,494	-160.5	2,476.2	30,972.9
기타 채권 펀드 (Other bond totals)		4,451,597	-15,184.0	7,544.2	-42,021.7
	- MMF 채권펀드	3,582,910	-15,972.1	2,968.2	-81,876.6
	- Balanced Funds	868,686	788.1	4,576.1	39,854.9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4 : 주요 증시 일정

15(월)	16(화)	17(수)	18(목)	19(금)
한국> 가격제한폭 30% 확대	美> 5월 주택착공건수	美> FOMC 통화정책회의	美> 5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美> 5월 광공업생산 MoM	독일> 5월 최종 소비자물가지수 ZEW 서베이 예상	유럽>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유럽>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日> 5월 무역수지	日> BOJ 통화정책회의	

22(월)	23(화)	24(수)	25(목)	26(금)
美> 5월 기준주택매매	美> 5월 내구재주문 5월 신규주택매매	美> 1분기 GDP QoQ		日> 5월 실업률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中> 6월 예비 HSBC 제조업 PMI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美> 6월 미시간대 소비자지수
	유럽> 6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日> 6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정리: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정책기대, 경기우려 등에 주요 이머징 혼조세

- ▶ 상해종합지수는 정부의 추가적인 통화완화 진행 기대,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 등에 상승
- ▶ 홍콩 증시는 후강통 투자한도 취소에 대한 홍콩거래소 측의 발언 등에 힘입어 0.9% 상승
- ▶ 자카르타종합지수는 2분기 경상적자 규모 축소, 2015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등에 보합세
- ▶ VN지수는 주식 매매 결제기간 T+2로 단축, 일중 매매 허용 등에 대한 기대로 추가 상승

상해종합 0.9% 상승,
소비, 전력 등 강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0.9% 올라 5,166p로 마감했다. 주간단위로는 2.85% 상승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폭은 직전의 8.9%보다 축소됐다. 12일 거래대금은 1.06조위안으로 전날보다 더 확대됐다. 중국정부가 추가적인 통화완화를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고 용자용권 만기기한 연장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2개월간 1.5조위안에 달하는 예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됐다는 소식 등이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다음주에 대규모 IPO가 진행될 예정이란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종합지수와 차스닥지수가 모두 1% 가까이 상승했다. 최근 부동산실적 개선과 밸류에이션 저평가 인식에 힘입어 부동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개혁기대감이 집중된 군수, 조선 등의 업종들도 강세였다. 최근 상대적으로 제한된 주가상승폭을 보였던 경기방어주인 소비, 전력 등의 업종들도 시장 전체를 아우르며 상승했다. 한편 거액의 양도성예금 증서 발행금리가 기준금리대비 40% 상향되었다는 소식에 은행 업종은 약세흐름을 기록했다.

홍콩H지수 1.8% 상승
대부분 업종 강세

■ 홍콩 시장

홍콩H지수가 1.8% 올라 13,984p로 마감했다. 주간단위로는 0.5% 상승해 3주 만에 강세로 전환됐다. 중국 인민은행이 연간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통화완화 조치를 내놓을 것이며 증감회가 용자용권 만기기한 연장, 후강통 투자한도 취소에 대한 홍콩거래소 측의 발언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외부에서는 5월 미국의 소매판매 증가율이 2개월 만에 회복세로 돌아섰던 호재에 힘입어 뉴욕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글로벌투자자들의 매수심리가 강화됐다. 최근 주가흐름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자동차, 증권, 철도, 부동산, 보험 등에 매수자금이 흘러들면서 지수강세를 주도했다.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에 신재생에너지차량을 사용하도록 요구했던 호재에 힘입어 비야디 주가는 9.2% 뛰어올랐다.

VN지수 0.1% 상승
부동산 등 업종 강세

■ 인도네시아 시장

자카르타종합지수는 0.1% 상승했다. 올해 2분기 경상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중앙은행의 발언이 호재로 작용했다. 부동산, 유통 관련주가 상승 마감했다. 반면 해외 주요 기관들이 인도네시아의 2015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부정적으로 작용해 지수 상승 폭을 제한했다. 제품 가격 하락에 팜오일, 금속 업종은 동반 하락했다.

■ 베트남 시장

VN지수 0.3% 상승
금융, 에너지, 부동산 등 업
종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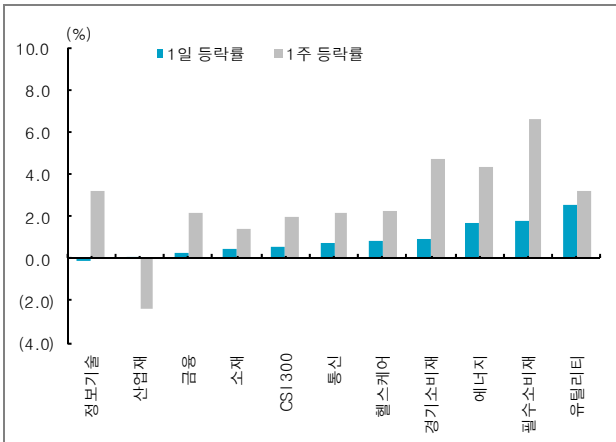
VN지수는 0.3% 추가로 상승하며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고 580선을 상향 돌파했다. 일중 주식 매매, 동일한 계좌 매매 허용 등 증시 개선 방안에 대한 정부의 발언이 큰 호재로 작용했다. 그 외 주식 매매 결제기간 T+2로 단축 방안도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국가증권위원회의 언급으로 매수심리가 강해졌다. 은행, 부동산, 에너지 등 대부분 업종이 동반 상승했다.

주요 이머징마켓 뉴스

시장 구분	주요 내용
중국	연내로 중국제조2025 장기플랜인 그린북이 발표될 가능성 -경제참고보 민항총국, 한국 메르스 방지관련 출입국 단속을 강화하도록 요구 인민은행, 최근 2개월간 예금잔액이 1.49조위안 급감
베트남	공공부채 문제가 국가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악재가 될 것 - 피치
베트남	정부, 일중 주식 매매, 동일한 계좌 매매 허용 등 증시 개선 방안 진행할 것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 주식 매매 결제기간 현재 T+3에서 T+2로 단축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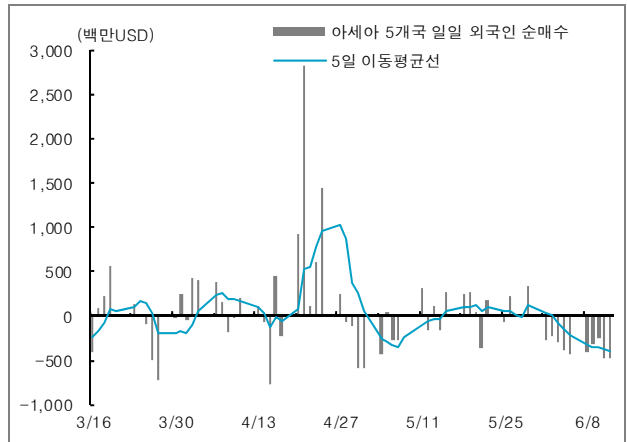
◆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그림 1] 중국 CSI300 업종별 등락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아세아 5개국*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개국의 달러자금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6/12(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5,166.35	0.87	2.85	12.03	59.72
홍콩 H	13,984.00	1.75	0.50	-0.85	16.68
중국 차스닥	3,899.71	0.97	0.36	10.07	164.97
인도 SENSEX	26,365.70	-0.02	-1.50	-5.26	-4.12
인도네시아 JCI	4,935.82	0.14	-3.23	-5.38	-5.57
태국 SET	1,508.77	-0.40	0.09	0.85	0.74
베트남 VN	582.73	0.29	0.81	2.31	6.80
MSCI 이머징마켓	976.78	-0.11	-0.55	-2.73	2.14

주: 12일 오후 6시 5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국내외 이벤트를 앞두고 경계심리가 확산되며 동반 하락세

- 미국증시는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난항에도 불구하고 미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 회복 소식에 힘입어 소폭 상승세로 마감.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로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외국인 순매도로 돌아서고 기관의 매도세가 강화되며 하락반전, 장중 2,044P까지 하락했으나 하락폭을 다소 줄이며 2,052P로 마감. 코스닥은 투신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개인 매도세로 하락반전 하며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미 FOMC 결과와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가격제한폭 확대 등을 앞두고 경계심리가 확산되는 모습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중국 영화시장에서의 성장 기대감에 CJ CGV가 급등했으며, 팬오션의 변경회생계획안 가결로 하림그룹의 인수 확정 기대감에 하림, 하림홀딩스가 강세를 보임. 모바일 개인방송 시장 확대로 트래픽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익 성장 기대감에 아프리카TV가 10% 가까운 강세를 보였으며, 이미지센서 및 칩셋 개발·설계 전문기업 픽셀플러스는 신규 상장 첫날 7% 이상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를 하회함. 또한 국내외 고성장 전망에 한국콜마와 한국콜마홀딩스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일부 화장품 종목들이 동반 강세를 보임. 반면, 실소유주의 검찰 추가 기소 소식에 쌍방울이 급락했으며, 차인철 대표의 지분 매각 소식에 인바디가 6% 이상 하락

종목/테마	내 용
CJ CGV(079160) ▶109,000(+6.86%)	중국 영화시장 성장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메르스 확산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중국 영화시장에서의 성장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 올해 중국 박스오피스는 ‘분노의 질주7’과 ‘어벤져스’에 힘입어 지난달 말까지 28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약 67% 성장세를 보임
하림(136480) ▶4,870(+5.18%)	팬오션 인수 확정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서울법원중합청사에서 개최한 팬오션 관계인 집회에서 ‘1.25대 1 주식 감자안’ 등을 포함한 팬오션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에 견조한 오름세 - 이에 따라 향후 주주총회 등의 법적절차를 거쳐 하림그룹의 팬오션 인수작업이 완료될 것이며, 다음 달 안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
아프리카TV(067160) ▶29,150(+9.38%)	트래픽 증가세가 지속되며 성장 기대감에 급등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개인방송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1분기 월평균가입자수가 800만명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초강세 - 아울러, 새로운 경쟁사 Koo TV가 지난 3일부터 방송을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오히려 상승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
화장품 관련주	화장품 업황 성장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고성장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한국콜마가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최근 메르스 우려로 약세를 보였던 화장품주가 동반 강세를 보임 - 한국콜마(161890), 한국콜마홀딩스(024720, 이상 상한가), 현대아이비티(048410, +7.98%), 에스텍파마(041910, +5.75%), 코스맥스비티아이(044820, +5.41%), 아모레G(002790, +2.69%)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국내외 증시 동향 및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 경제지표 호조로 미 연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IMF와 그리스 정부와의 구제금융 협상을 두고 미국과 유럽증시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임. 결국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이 중단되며 그리스 디폴드 우려가 고조됨
- 국내증시는 6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 장세를 연출하며 약세를 보임. 외국인 매도세가 한주 내 이어지며 코스피는 장중 2,040P선까지 추락했으나, 하락폭을 다소 만회하며 2,052P로 한주를 마감. 코스닥은 전주 대비 소폭 오름세를 보이며 710P선 회복에 성공

구분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유가증권	IT	서비스업	더존비즈온	14,750	17.5	유틸리티	건설업	한전KPS	120,500	7.6
	IT	전기전자	디피씨	6,550	2.5	건강관리	의약품	일동제약	28,250	13.2
	소재	종이목재	신풍제지	12,250	30.3	건강관리	의약품	한미약품	472,000	2.8
	소재	서비스업	KISCO홀딩스	62,500	11.0	건강관리	서비스업	한미사이언스	90,900	26.3
	소재	철강금속	한국철강	50,000	38.7	경기소비재	서비스업	한세에스24홀딩스	21,650	9.9
	소재	철강금속	대한제강	7,940	20.5	경기소비재	서비스업	코스맥스비티아이	70,200	4.3
	소재	화학	효성	130,000	4.8	경기소비재	화학	덕성	8,970	21.2
	산업재	건설업	삼한까무	12,350	34.2	경기소비재	운수장비	태원물산	3,340	17.0
	산업재	미분류	에넥스	6,800	30.3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신영와코루	150,000	7.1
	산업재	유통업	한샘	265,000	11.6	경기소비재	서비스업	한국콜마홀딩스	65,300	14.4
	산업재	비금속	동양	1,670	8.4	경기소비재	화학	한국콜마	110,000	18.3
	산업재	기계	대동공업	12,050	14.8	필수소비재	음식료	크라운제과	574,000	16.4
	산업재	서비스업	노루홀딩스	33,500	6.7	필수소비재	음식료	무학	57,600	10.6
	에너지	기계	세원셀론텍	6,030	49.4	유틸리티	건설업	한전KPS	120,500	7.6
	코스닥	IT	일반전기전자	로체시스템즈	4,625	11.6	금융	금융	엠벤처투자	688
IT		소프트웨어	아로마소프트	2,280	19.4	산업재	전기전자	비츠로테크	6,030	15.3
IT		소프트웨어	한솔넥스지	5,780	25.2	산업재	기계장비	글로벌에스엠	2,405	26.2
IT		반도체	제주반도체	7,250	34.3	산업재	기계장비	대동기어	29,750	5.7
IT		인터넷	이상네트웍스	6,000	12.6	산업재	기계장비	화성	9,500	19.5
IT		통신장비	포티스	14,900	21.6	산업재	종합건설	동원개발	57,800	4.3
IT		일반전기전자	서호전기	15,800	28.5	산업재	금속	케이퍼티	12,300	12.3
IT		반도체	티씨케이	24,900	5.7	산업재	금속	삼강엠앤티	5,430	33.6
IT		반도체	엠케이전자	9,900	31.5	에너지	전문기술	에너지솔루션	5,880	38.5
IT		소프트웨어	누리텔레콤	11,650	51.3	에너지	전문건설	일경산업개발	2,680	11.0
IT		소프트웨어	MDS테크	25,850	10.7	건강관리	부동산	솔본	7,250	18.9
IT		통신장비	유비쿼스	14,400	17.6	건강관리	의료기기	오스템임플란트	65,000	4.8
IT		반도체	엘디티	2,875	13.0	건강관리	의료기기	루트로닉	56,900	24.8
IT		기계장비	DMS	6,900	10.4	건강관리	제약	오스코텍	5,400	35.0
IT		사업지원	엠피씨	3,965	5.5	건강관리	제약	에스텍파마	16,550	42.7
IT		컴퓨터서비스	필링크	7,500	11.6	건강관리	제약	메디포스트	109,000	18.3
IT		IT부품	하이소닉	4,780	6.9	건강관리	제약	메디톡스	515,300	7.7
IT		컴퓨터서비스	아남정보기술	3,870	31.2	건강관리	연구개발	바이로메드	180,000	2.4
소재		화학	한일화학	18,600	33.8	유틸리티	전문건설	에코에너지	20,800	9.8
소재		금속	대호피앤씨우	994	40.0	경기소비재	화학	바이오랜드	38,700	17.6
소재	종이목재	삼릉물산	5,800	28.2	경기소비재	오락문화	팬엔터테인먼트	9,020	6.1	

주) 상기 종목들은 6월12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단기 유망종목: 이수페타시스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이수페타시스 (007660)	6,380 (+0.2)	6,370 (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장비용 MLB(Multi-Layer Board)생산 전문업체로 네트워크장비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지속 예상 - 중국 후난 법인의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수주 호조와 자회사 수익 개선으로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하반기 중화권 신규 거래처 확보로 장기 성장성 부각 가능성
진성티이씨 (036890)	7,000 (+0.3)	6,980 (6/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대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라(Caterpillar)향 매출은 장기공급계약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도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 또한 글로벌 메이저 굴삭기 업체들의 부품 아웃소싱 확대 추세 속에 Bobcat, Komatsu 등으로의 공급 물량 확대 지속 - 해외 고객사 비중 확대와 중국 법인의 턴어라운드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예상
평화정공 (043370)	14,600 (-16.3)	17,450 (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분기 실적은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매출과 제품믹스 개선을 통해 작년 하반기 대비 개선세 시현 - 해외 공장 증설을 통한 매출증대 및 고객사 다변화와 도어 관련 신제품(Active hood, Power tail gate) 채택 증가에 따른 하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 유효
KT&G (033780)	93,300 (-2.5)	95,700 (5/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인상으로 연초 감소했던 담배수요 및 시장 점유율의 점진적인 회복세와 ASP 개선 및 비용통제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예상 - 담배 수출 증가와 홍삼사업의 면세 실적 및 내수 수요 회복을 통한 실적 개선과 배당 매력도(금년 예상 DPS 3,700원)를 주목할 필요
백산 (035150)	6,020 (+21.0)	4,975 (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F쏘나타를 통해 진입에 성공한 시트용 합성피혁 부문 적용 모델 확대로 안정적인 성장 가능 전망 - 캐시카우인 신발부문은 경쟁사의 공장 해외 이전으로 인한 반사이익 등으로 전년 대비 15% 이상 성장 예상 - 카시트 적용 모델 확대, 모바일 제품으로의 가죽 케이스 공급 등 사업포트폴리오 확대를 감안할 때 추가 상승여력 상존
디티앤씨 (187220)	24,450 (-9.9)	27,150 (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기기, 의료기기 등에 강점 보유한 시험인증 전문기업으로 기간산업 인증센터를 통해 원자력, 자동차, 열차 부문으로 사업영역 확대 도모 - 국내외 인증시장의 성장세, 높은 진입장벽, 고부가가치 분야 위주의 사업모델 등을 감안할 때 성장주로서의 프리미엄 지속 예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KT&G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KCC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5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KCC (002380)	483,000 (-14.2)	563,000 (3/31)	3,528	329	260	26,571	18.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자재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재료 매입액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2014년 기말 배당금을 6년만에 주당 8천원으로 1천원 상향하며 주주 가치 제고에 노력 - 안정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풍부한 자산가치를 감안할 때 재평가 가능성 상존
현대모비스 (012330)	213,000 (-14.1)	248,000 (2/2)	38,488	3,297	4,058	42,468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기아차의 친환경차 라인업 강화와 준중형모델들의 ADAS(운전보조장치) 채택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예상 - 현대/기아차의 누적 판매 대수 확대에 따른 AS부품 판매의 구조적 증가와 이익 방어력을 주목할 필요 - 견고한 펀더멘털 및 글로벌 peer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엔씨소프트 (036570)	190,500 (+5.5)	180,500 (1/2)	861	266	220	11,035	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선 가운데 기존 게임의 ARPU 상승과 길드워2 확장팩 출시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세 지속 예상 - 리니지1의 수익성 높은 신규 아이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리니지, 아이온, 블레이드앤소울의 추가 구성상품 선택을 통한 ARPU 상승 예상 - 2015년에는 블레이드앤소울 TCG, 패션스트리트, 팡야 등 모바일 게임 다수 출시 예정
LG하우시스 (108670)	143,000 (-10.3)	159,500 (1/2)	3,137	163	123	12,279	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산업의 회복으로 PVC 창호, 바닥재 등 건자재 건자재 매출 성장이 예상되며, 자동차, 가전관련 소재도 거래처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성장 가능할 전망 - PVC, 가소제, MMA 등 화학제품 가격 하락으로 원재료 감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미국에 자동차 원단 공장 증설, B2C 건자재 확대(온라인 '지인몰' 오픈 등) 등 다각적 투자를 통한 장기 성장동력 강화
LG생활건강 (051900)	721,000 (+16.7)	618,000 (1/2)	5,083	600	427	25,640	2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에도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 매출호조와 방문판매 매출증가로 화장품 부문의 실적은 개선세 지속 예상 - 화장품 면세채널과 중국사업 정상화, 생활용품과 음료부문의 경쟁완화 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주목할 필요
SK하이닉스 (000660)	46,550 (-2.5)	47,750 (1/2)	19,340	6,100	5,180	7,120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버, 모바일, 그래픽 등 D램 수요 확대로 D램 가격 안정세 지속 - 애플 및 OEM 수요, 스마트폰 신제품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15년에도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예상 - 영업활동을 통한 순현금 창출능력을 감안할 때 자사주 취득 및 주주배당을 통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 유효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LG생활건강, 엔씨소프트,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KCC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전기전자: TV세트의 수난시대-3

■ 2분기에도 글로벌 LCD TV 수요는 예상보다 부진

1분기에 글로벌 LCD TV 판매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5월에 중국 노동절 TV 판매가 전년대비 역성장을 기록한 점 등을 감안하면 2분기에도 글로벌 LCD TV 수요는 예상보다 부진할 전망이다. 특히 동유럽, CIS, 중남미 등 이머징국가의 통화약세에 대응하여 국내 TV 업체들이 판가를 인상했는데, 이러한 판가인상이 수요부진에 더욱 기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 국내 TV 업체들의 2분기 TV 부문 실적에도 다운사이드 리스크 발생할 전망

글로벌 LCD TV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함에 따라 2분기 국내 TV 업체들의 LCD TV 판매대수가 예상치를 하회할 전망이다(삼성전자의 LCD TV 판매대수는 전분기대비 3% 증가에 그친 1,030만대를 기록할 전망이고, LG전자는 전분기대비 4% 감소한 700만대를 기록할 전망). 또한 두 회사의 TV 부문의 영업이익률도 예상치를 하회할 전망이다. 1) 이러한 LCD TV의 수요 부진과 더불어 2)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게 형성 중이고(그림5 참조, TV 세트부문은 달러 short 포지션임에 따라 원/달러 환율 상승이 영업이익에는 부정적으로 작용), 3) 주요 부품인 TV패널가격도 예상보다 서서히 하락함에 따라(그림1 참조) TV 세트업체들의 원가개선도 더디게 나타날 전망이다.

■ 로컬 업체와 PB(Private Brand) 업체들의 등장으로 경쟁이 더욱 심화

그 동안 한국, 중국, 일본 업체들로 편중되던 글로벌 TV 시장에서 각 지역 로컬 TV 업체들과 PB TV 업체들의 등장 및 이들 업체들의 점유율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TV 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측면이 국내 TV 업체들에게는 또 다른 위협요소로 작용 중이다.

■ TV 세트업종의 수익성 회복은 당분간 제한적일 전망

향후 TV 패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전망임에 따라 TV 세트업체들의 원가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글로벌 LCD TV의 수요 부진, 이머징시장의 통화약세, 원/달러 환율의 강세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잔존하고 있어 TV 세트업체들의 수익성 회복은 당분간 제한적일 전망이다. 특히 TV 세트업체들의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OLED TV와 퀀텀닷 TV 등 신규 고가 TV의 비중 상승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5년 6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음식료 · 담배: 15/16년 곡물 재고율 등락 → 안정에서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 2015/16년 세계 재고율 전망치: 소맥, 대두는 하락, 옥수수는 상승

미국 농무성(USDA)이 11일(현지 시간 10일)에 6월 세계곡물수급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16년 주요 곡물의 재고율 전망치는 전월대비 소맥, 대두는 하락했고, 옥수수는 상승했다. 15/16년 재고율은 소맥 28.1%(5월 전망치 28.4%), 옥수수 19.7%(19.4%), 대두 30.5%(31.6%)를 기록했다. 14/15년 재고율은 소맥 28.0%(5월 전망치 28.1%), 옥수수 20.2%(19.7%), 대두 28.5%(29.3%)를 기록했다.

■ 생산 상황보다 소비 상황이 커

15/16년 소맥: 이번에 전망된 15/16년 기말재고율(기말재고/소비*100)은 전월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세계 생산 전망은 전월대비 2.1백만톤 증가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봄 강우량 증가로 인해 전월대비 각각 1.5백만톤, 1.0백만톤 증가한 데에 기인한다. 세계 소비량은 전월대비 3.0백만톤 증가했다. 타 곡물대비 낙폭이 컸기에 저가 사료용 소비가 EU, 러시아, 태국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각각 1.0백만톤, 0.5백만톤, 0.4백만톤 상향됐기 때문이다.

15/16년 옥수수: 기말재고율 전망이 전월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기초 재고가 워낙 늘어 생산 감소,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말 재고량이 전월대비 3.3백만톤 증가하고 말았다. 세계 생산 전망은 전월대비 0.5백만톤 감소했다. 러시아가 경작면적이 늘고 수율이 개선됐지만, 잠비아, 네팔, 짐바브웨, EU의 작황이 악화됐다.

15/16년 대두: 기말재고율이 전월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세계 생산 전망은 러시아에서 경작 면적이 상향되어 전월대비 0.3백만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소비가 가격이 단기에 상대적인 낙폭이 커 이보다 크게 증가했다. 브라질에서는 최신 통계치가 반영되며 전년도 소비 상황에 따라 2015/16년 기초 재고가 전월대비 3.3백만톤 감소했다.

■ 곡물가격 변동성 커지므로 구조적 성장기업에 투자 집중할 필요

1개월전 곡물가격의 보합을 예상했는데, 실제치는 소맥 +7.8%, 옥수수 -0.3%, 대두 -3.6%, 원당 -10.5%로 큰 등락을 보였다. 앞으로도 곡물가격은 상향하는 방향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ONI는 5월 0.60도에서 6월 1일 발표는 0.74도로 엘니뇨가 강화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상당수의 기관이 엘니뇨는 현재 수준보다 초겨울까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곡물의 생육기에 접어들어 이러한 기상 이변 강화 관측이 곡물가격의 상승 압력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음식료업종에 대해서는 당분간 보수적인 입지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설령 곡물가격이 크게 오르더라도 제품가격 전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 펀더멘털이 나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 경우 제품가격을 올리기 전까지 일단 불확실성이 주가 상승의 부담으로는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당분간 음식료 투자는 구조적 성장 요인이 강하거나 단기 실적이 기대를 상회할 업체로 압축할 필요가 있다. 이번 달 Top picks는 롯데칠성, 오리온, CJ제일제당, 농심이다. 롯데칠성은 주류 선두업체로의 레벨업이 기대되며, 오리온은 올해와 내년 중국 실적 성장률이 가파를 것이다. CJ제일제당은 메치오닌을 비롯한 바이오의 선방으로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이며, 농심도 원가 부담 축소와 점유율 바닥 통과가 매력적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5년 6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고려아연(010130)

매수(유지)

목표가: 600,000원(상향)

종가(6/11): 507,000원

더욱 본격화되는 증설 가치

■ 목표주가 535,000원에서 600,000원으로 12% 상향

우리는 목표주가를 2015년 EPS에 목표 PER 10배를 적용한 후에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을 통해 산출했다. 그러나,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는 증설까지 남은 기간이 짧아 위와 같은 방식의 유효성이 낮아졌다. 목표주가 산출방식을 12개월 forward EPS에 목표 PER 12배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에 목표주가를 600,000원으로 12% 상향한다. 목표 PER을 10배에서 12배로 상향했는데 주력 제품인 아연 가격 강세를 예상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비철, 2010년 초반대의 귀금속 가격 강세 기간 평균 PER이 12배였다. 우리는 아연 가격이 1) 중국 냉연 생산 확대로 수요가 증가하는데 2) 고려아연을 제외한 글로벌 제련사들의 증설은 제한적이어서 3)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 아연, 조기 증설에 박차를 가하는 중

우리는 지난 4월에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는 1) 제2비철단지, 2)아연 합리화 증설 등의 조기 완공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아연 합리화는 조기 증설이 확실해 보인다. 중국의 냉연 신규 라인 가동으로 아연 수요가 늘고 있다. 조기 완공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하루라도 빨리 아연 합리화 공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아연 증설은 4분기 중에 완공되어 곧바로 생산에 돌입할 것이다. 따라서 증설에 따른 실적 레벨업은 내년 1분기가 아닌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된다. 증설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 2분기, 연결 영업이익 3년 만에 2,000억원 상회할 전망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1분기 대비 16.7% 증가한 2,015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1) 비철 수요 성수기로 출하량이 증가(아연 6%, 연 15%, 금 4%, 은 12%)하고, 2) 상승한 제련수수료(전년대비 정광 톤당 22달러 상승)가 적용되고, 3)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연과 연 가격이 전분기 대비 상승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직 미정이나 원/달러 평균 환율도 1분기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적에 부정적인 요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 차익 실현보다 추가 매수 전략 권고, 투자 의견 '매수' 유지

우리는 아직 차익 실현에 나설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증설에 따른 가치 상승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력 제품인 아연이 4분기부터 실적 레벨업을 주도하고, 공급 부족으로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3A	4,818	599	448	25,352	(20.0)	745	12.5	6.8	1.4	11.1	1.6
2014A	4,939	683	501	28,362	11.9	839	14.2	8.1	1.6	11.4	1.6
2015F	5,160	798	607	34,322	21.0	1,018	14.8	8.4	1.8	12.4	1.4
2016F	8,434	1,443	1,111	62,857	83.1	1,668	8.1	4.7	1.6	19.9	2.4
2017F	9,277	1,586	1,199	67,860	8.0	1,818	7.5	4.2	1.4	18.4	2.6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5년 6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LG이노텍(011070)

매수(유지)
목표가: 145,000원(유지)
종가(6/11): 103,000원

양호한 2분기 실적, 업종 내에 Top Pick 유지

■ 2Q15에 컨센서스를 충족하는 실적 전망. 투자의견 매수 유지

LG이노텍에 대한 목표주가 145,000원을 유지하고 투자의견 역시 매수를 유지한다. 1) 2Q15 영업이익이 컨센서스(720억원)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되어 다른 전기전자 업체들과 대비해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고, 2) 2분기말부터 A사의 신규 스마트폰용 부품이 예상대로 납품을 시작할 전망이며, 3) LG전자 G4용 부품물량 납품 역시 예상대로 진행 중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 2Q15 영업이익은 우호적 환율과 수출 개선이 이끌 전망

2Q15 LG이노텍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한다(예상매출액은 전분기대비 2% 증가한 1.57조원으로, 예상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5% 증가한 720억원으로 전망). 원/달러 환율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된 점과 카메라모듈 부문에서 수출이 예상보다 높은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LG전자 G4용 부품물량이 예상대로 진행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TV 관련 부품과 터치패널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추정

하지만 글로벌 LCD TV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하여 TV 관련 부품들의 실적은 다소 부진할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TV용 LED의 부진으로 LED 부문의 영업적자 축소폭은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 스마트폰 수요 부진으로 동사의 중국용 터치패널 매출액도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A사의 신규 스마트폰용 카메라모듈 납품으로 동사는 큰 폭의 수혜가 전망

A사의 신규 스마트폰용 카메라모듈 납품으로 동사는 큰 폭의 수혜가 전망된다. 그러한 요인은 1)물량측면에서 올해는 A사의 저가폰 모델까지 출시될 전망이고, 2) 시기측면에서 동사는 예년보다 빠르게 6월말부터 납품을 시작할 전망이며, 3) 카메라화소수의 증가로 가격측면에서 20% 이상 상승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 올해 자동차용 부품의 수주 목표도 충분히 달성할 전망

1분기에 자동차용 부품의 수주액이 5,800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241.2%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기존 모터와 센서 이외에 카메라모듈, 터치패널, LED 등으로 응용영역을 확대 중인데 이러한 신규 사업들은 기존 부품들 대비 매출인식 시기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나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양호한 수주 추세에 따라 올해 자동차용 부품의 수주 목표액인 2.5조원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3A	6,212	136	16	771	NM	665	108.6	5.2	1.3	1.2	-
2014A	6,466	314	113	4,761	517.5	849	23.6	4.4	1.6	7.5	0.2
2015F	6,973	367	225	9,528	100.1	886	10.5	3.6	1.2	12.5	0.3
2016F	7,657	456	311	13,157	38.1	976	7.6	3.1	1.1	15.1	0.3
2017F	7,992	497	346	14,621	11.1	1,027	6.8	2.7	0.9	14.5	0.3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5년 6월 1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송승연(seungyeon.song@truefriend.com) ☎ 02-3276-6273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6/5(금)	6/8(월)	6/9(화)	6/10(수)	6/11(목)	6/12(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68.10	2,065.19	2,064.03	2,051.32	2,056.61	2,052.17	
	등락폭	-4.76	-2.91	-1.16	-12.71	5.29	-4.44	
	등락종목	상승(상한)	279(2)	461(16)	524(9)	368(16)	428(6)	314(8)
		하락(하한)	530(1)	351(2)	298(1)	439(1)	402(1)	498(0)
	ADR	87.64	86.11	85.02	85.20	83.87	80.66	
	이격도	10 일	98.44	98.69	99.01	98.66	99.18	99.26
		20 일	98.19	98.10	98.12	97.62	98.01	97.95
	투자심리	40	30	30	30	30	20	
	거래량 (백만 주)	394	394	422	427	457	384	
	거래대금 (십억 원)	6,197	5,601	5,606	6,260	7,629	5,960	
코스닥	코스닥지수	707.27	716.43	722.51	718.23	717.00	712.40	
	등락폭	2.71	9.16	6.08	-4.28	-1.23	-4.60	
	등락종목	상승(상한)	279(18)	461(32)	524(19)	368(25)	428(15)	341(11)
		하락(하한)	530(2)	351(4)	298(4)	439(1)	402(3)	657(8)
	ADR	92.57	89.98	89.51	90.66	87.48	83.81	
	이격도	10 일	100.02	101.28	101.94	101.06	100.77	100.11
		20 일	100.55	101.60	102.24	101.41	101.06	100.32
	투자심리	40	30	30	30	30	20	
	거래량 (백만 주)	558	496	507	563	506	475	
	거래대금 (십억 원)	4,278	3,772	4,001	4,133	3,862	3,805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3,415.0	1,378.4	1,148.6	265.7	134.3	291.2	54.5	18.5	384.415	50.7
	매도	3,193.3	1,463.3	1,290.6	272.4	135.4	349.6	108.9	38.6	385.7	45.5
	순매수	221.7	-84.9	-142.0	-6.7	-1.2	-58.4	-54.4	-20.1	-1.3	5.2
	6월 누계	1,104.0	20.5	-1,176.8	-606.9	-351.0	-73.1	-102.1	-458.0	414.2	52.3
	15년 누계	-99.2	9,449.5	-9,686.4	-5,042.9	-1,024.1	-6,285.5	-782.9	-449.5	3,898.5	336.1
	코스닥	매수	3,355.8	226.3	227.4	44.5	24.7	85.4	23.0	7.5	42.2
매도		3,357.1	238.3	213.0	64.6	21.9	46.5	25.2	6.2	48.6	29.1
순매수		-1.4	-12.0	14.4	-20.0	2.8	38.9	-2.2	1.3	-6.4	-1.0
6월 누계		-235.9	64.2	221.3	-52.7	97.6	160.5	10.4	-11.6	17.1	-49.6
15년 누계		1,062.4	-209.6	117.0	-137.8	230.5	147.4	-55.0	-105.3	37.2	-969.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신				연기금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유통업	6,816	서비스업	-23,732	전기,전자	19,473	서비스업	-19,792
전기가공업	4,696	화학	-14,529	보험	11,807	제조업	-11,523
통신업	4,081	의약품	-7,993	금융업	9,137	철강및금속	-10,575
TIGER 원유선물(H)	7,100	SK C&C	-12,103	삼성전자	14,661	NAVER	-21,261
한국전력	5,562	한미약품	-10,964	SK이노베이션	11,173	POSCO	-12,179
SK네트웍스	5,386	SK	-7,659	호텔신라	8,249	LG생활건강	-7,273
SK텔레콤	4,350	LG생활건강	-4,716	한샘	7,706	제일모직	-6,970
SBS	4,077	NAVER	-4,621	SK텔레콤	5,869	한미사이언스	-6,528

(체결기준: 백만원)

은행				보험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보험	1,269	철강및금속	-4,913	제조업	4,647	전기,전자	-11,070
운수창고	628	서비스업	-4,591	철강및금속	4,334	운수장비	-4,210
통신업	391	화학	-2,994	화학	3,741	금융업	-3,689
TIGER 200	31,257	KODEX 200	-7,351	SK케미칼	6,824	KODEX 200	-8,157
KODEX 레버리지	1,714	현대제철	-3,087	삼성에스디에스	3,660	삼성전자	-7,967
TIGER 경기방어	1,131	OCI	-2,968	SK C&C	3,450	삼성물산	-5,764
SK하이닉스	656	SK이노베이션	-2,955	LG이노텍	3,232	LG디스플레이	-4,823
두산	546	POSCO	-2,030	아모레G	3,142	한미사이언스	-4,760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관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순매수		순매도	
유통업	18,393	서비스업	-40,917	서비스업	69,334	유통업	-31,604
음식료품	8,016	운수장비	-35,486	증권	3,085	운수장비	-28,287
통신업	7,628	화학	-25,916	건설업	2,144	금융업	-22,755
KODEX 인버스	32,631	KODEX 레버리지	-52,125	NAVER	66,629	현대차	-17,266
한국전력	10,889	NAVER	-31,269	삼성전자	43,267	SK하이닉스	-17,070
LG이노텍	9,376	POSCO	-19,553	SK C&C	13,732	한국전력	-12,718
SK이노베이션	9,361	LG생활건강	-17,020	LG생활건강	11,199	LG전자	-10,377
호텔신라	9,128	한미약품	-14,234	강원랜드	6,331	SK	-10,254
아모레G	8,099	삼성전자	-14,167	대우증권	6,016	삼성전기	-10,235
SK텔레콤	8,069	한미사이언스	-13,978	삼성중공업	5,911	한샘	-8,457
한샘	7,776	LG디스플레이	-13,346	현대산업	5,897	하나금융지주	-8,354
롯데칠성	6,268	SK C&C	-12,461	아모레퍼시픽	5,708	SK텔레콤	-7,632
한화케미칼	6,131	삼성물산	-11,483	제일모직	5,456	현대모비스	-7,626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계약	7,284	디지털컨텐츠 -1,988
의료,정밀기기	6,134	전문기술 -1,721
오락,문화	5,403	방송서비스 -1,004
파라다이스	5,578	CJ E&M -1,410
오스텀임플란트	4,504	컴투스 -1,388
한국토지신탁	4,135	보령메디앙스 -957
모두투어	4,074	바이로메드 -944
셀바이오텍	2,346	나노신소재 -702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2,153	의료,정밀기기 -4,878
오락,문화	1,412	연구,개발 -4,359
계약	1,199	종이,목재 -1,980
셀트리온	2,451	바이로메드 -4,359
바이오랜드	2,067	인바디 -4,348
파라다이스	1,490	이녹스 -2,042
다음카카오	946	삼성엘엔에스 -1,980
유진기업	930	CJ E&M -1,841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소프트웨어	1,053	오락,문화 -465
계약	957	도매 -402
방송서비스	657	IT부품 -383
GS홈쇼핑	656	파라다이스 -465
웹젠	654	위메이드 -405
누리텔레콤	646	뷰웍스 -264
대한약품	631	인터플렉스 -249
바텍	431	씨티씨바이오 -249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의료,정밀기기	3,437	소프트웨어 -2,096
도매	1,930	반도체 -1,501
화학	1,665	정보기기 -705
로만손	2,699	누리텔레콤 -1,634
바이오랜드	1,936	바이넥스 -812
파라다이스	1,205	레드로버 -701
삼성엘엔에스	934	티씨케이 -630
크리스탈	892	OCI머티리얼즈 -628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7,874	연구,개발 -10,509
의료,정밀기기	5,781	인터넷 -6,934
소프트웨어	5,285	전문기술 -3,404
파라다이스	6,332	바이로메드 -11,958
바이오랜드	5,778	다음카카오 -6,886
메디톡스	5,210	셀트리온 -3,503
셀바이오텍	3,561	서울옥션 -3,325
오스텀임플란트	3,217	CJ E&M -3,289
녹십자셀	3,047	인바디 -3,188
에스텍파마	2,957	바이넥스 -2,794
아프리카TV	2,921	이녹스 -2,689
모두투어	2,650	게임빌 -2,618
뷰웍스	2,390	컴투스 -2,461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연구,개발	5,048	인터넷 -10,712
소프트웨어	3,038	도매 -3,316
방송서비스	2,210	화학 -3,004
셀트리온	5,700	다음카카오 -10,245
바이로메드	5,471	메디톡스 -5,549
씨젠	3,129	한국토지신탁 -2,393
아프리카TV	2,787	웹젠 -2,025
뷰웍스	2,450	에스텍파마 -1,253
CJ오쇼핑	2,414	서울옥션 -1,242
젬백스	1,601	유진기업 -1,239
에스엠	1,512	셀바이오텍 -1,239
이오테크닉스	1,454	지스마트글로벌 -1,238
한국정보통신	1,329	녹십자셀 -1,16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한일시멘트	17 일	태광산업	19 일	다산네트웍스	10 일	우주일렉트로	9 일
롯데칠성	15 일	한국가스공사	13 일	메가스터디	7 일	크레듀	8 일
신세계	14 일	삼성정밀화학	12 일	OCI머티리얼즈	5 일	에스엔유	8 일
하이트진로홀딩스	10 일	에스엘	12 일	넥슨지티	5 일	포스코엠텍	5 일
동아쏘시오홀딩스	10 일	강원랜드	12 일	현진소재	5 일	한진피앤씨	3 일
롯데케미칼	10 일	넥센타이어	11 일	메디포스트	5 일	아미노로지스	3 일
LG이노텍	7 일	도레이케미칼	9 일	매일유업	4 일	동진씨미켄	2 일
대웅제약	7 일	현대엘리베이	9 일	웹젠	4 일	성광벤드	2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KODEX 인버스	85,911	NAVER	168,629	파라다이스	23,410	인바디	25,022
SK이노베이션	68,320	LG생활건강	62,463	다음카카오	16,709	안랩	6,840
한샘	62,604	강원랜드	27,827	셀바이오텍	13,564	삼성엘엔에스	5,218
기업은행	50,849	기아차	26,502	한국토지신탁	11,732	로엔	4,447
LG이노텍	47,324	삼성중공업	24,294	녹십자셀	9,252	아프리카TV	4,432
삼성물산	43,969	현대차2우B	23,022	아프리카TV	8,244	오스템임플란트	4,024
한화케미칼	39,711	SK텔레콤	22,564	바이오랜드	7,019	한양이엔지	3,697
롯데케미칼	33,290	제일모직	19,523	동진씨미켄	7,005	셀트리온	3,264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은행	1,193	332	1,526	소프트웨어	5,285	3,038	8,323
의료정밀	87	331	419	제약	4,936	2,053	6,989
				의료,정밀기기	5,781	826	6,608
KODEX 인버스	32,631	2,466	35,097	아프리카TV	2,921	2,787	5,708
SK케미칼	623	5,365	5,988	뷰웍스	2,390	2,450	4,840
CJ	1,690	4,249	5,938	에스에프에이	2,319	1,102	3,420
한국콜마홀딩스	4,406	1,476	5,882	모두투어	2,650	496	3,145
엔씨소프트	231	5,123	5,354	코스온	1,329	1,032	2,361
삼성테크윈	4,056	824	4,880	원익IPS	1,025	1,106	2,131
삼성전자우	2,053	1,949	4,002	신성델타테크	1,414	70	1,484
더존비즈온	460	2,645	3,105	유비쿼스	206	922	1,129
에넥스	485	2,302	2,787	동진씨미켄	797	264	1,061
고려아연	2,326	223	2,548	크리스탈	983	66	1,050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디와이	30 일	파워 K100	28 일
TIGER 농산물선물(H)	28 일	TREX 200	21 일
POSCO	24 일	한일시멘트	17 일
세종공업	21 일	두산	14 일
현대상선	19 일	SK네트웍스	14 일
제일기획	19 일	한국셀석유	14 일
대한항공	15 일	신세계	14 일
퍼시스	13 일	동아쏘시오홀딩스	11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성우하이텍	11 일	덕산하이메탈	9 일
평화정공	11 일	KCC건설	7 일
다날	9 일	루멘스	7 일
한진피앤씨	7 일	엘앤에프	7 일
우주일렉트로	7 일	GS홈쇼핑	6 일
동국산업	6 일	KH바텍	6 일
인터플렉스	6 일	성우하이텍	4 일
성광벤드	5 일	메가스터디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121,890	삼성전자	-208,457
제일모직	-112,155	한샘	-67,193
NAVER	-111,398	현대차	-55,357
LG생활건강	-108,098	SK하이닉스	-45,216
대우조선해양	-48,431	호텔신라	-41,154
SK하이닉스	-46,953	롯데칠성	-38,347
LG디스플레이	-43,228	LG전자	-36,846
JW중외제약	-43,175	삼성전기	-33,021

KOSDAQ			
기	관	외	국 인
삼성엘엔에스	-16,189	원익IPS	-9,935
CJ E&M	-8,377	KH바텍	-7,702
CJ오쇼핑	-8,324	코미팜	-6,043
이오테크닉스	-7,124	GS홈쇼핑	-5,362
코오롱생명과학	-5,601	다음카카오	-5,337
서울반도체	-5,123	파라다이스	-3,758
셀트리온	-4,409	코리아나	-3,071
로엔	-3,965	제이콘텐트리	-2,829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운수장비		-35,486	-28,287 -63,773
전기,전자		-23,022	-4,695 -27,717
화학		-25,916	-1,314 -27,231
현대차		-8,358	-17,266 -25,624
SK하이닉스		-5,734	-17,070 -22,805
POSCO		-19,553	-360 -19,912
한미약품		-14,234	-3,246 -17,480
삼성전기		-6,295	-10,235 -16,530
삼성물산		-11,483	-1,268 -12,751
현대중공업		-9,292	-1,877 -11,170
KCC		-2,380	-7,542 -9,922
하나금융지주		-928	-8,354 -9,281
OCI		-7,465	-706 -8,171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인터넷		-6,934	-10,712 -17,646
디지털콘텐츠		-2,920	-2,995 -5,915
종이,목재		-2,151	-903 -3,054
다음카카오		-6,886	-10,245 -17,132
서울옥션		-3,325	-1,242 -4,567
리젠		-2,288	-965 -3,252
삼성엘엔에스		-2,162	-1,007 -3,169
게임빌		-2,618	-479 -3,097
이녹스		-2,689	-155 -2,844
컴투스		-2,461	-344 -2,804
에이블씨앤씨		-873	-992 -1,865
지스마트글로벌		-335	-1,238 -1,573
코오롱생명과학		-1,289	-124 -1,413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KODEX 200	917	23,101	
호텔신라	197	20,910	
현대상선	1,919	13,658	
SK하이닉스	271	12,853	
한샘	48	12,451	
삼성물산	175	12,434	
KCC	23	11,228	
기업은행	577	8,57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다음카카오	60	6,974	
인트론바이오	66	4,228	
파트론	341	3,228	
CJ오쇼핑	10	2,243	
컴투스	13	1,670	
바이넥스	84	1,477	
바이로메드	5	948	
코미팜	33	903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463	5,610,351	
SK하이닉스	21,843	1,028,794	
삼성중공업	55,483	990,376	
현대중공업	8,007	972,824	
현대차	6,681	922,031	
KODEX 200	34,602	873,876	
제일모직	4,852	873,360	
삼성에스디에스	3,142	843,63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1,311	1,583,391	
다음카카오	6,107	699,296	
CJ E&M	487	551,342	
위메이드	1,612	246,144	
컴투스	1,438	185,875	
바이로메드	1,009	177,538	
파라다이스	5,534	166,845	
에스엠	3,946	126,477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주 수	순 감	금액
증권	4,582	건설업	-1,443
기계	3,268	유통업	-1,251
의약품	1,937	화학	-796
KODEX 200	3,544	삼성물산	-4,450
금호타이어	2,756	흥아해운	-2,564
두산인프라코어	2,637	대우조선해양	-2,484
메리츠증권	2,534	락앤락	-970
현대제철	1,920	대우건설	-940
현대상선	1,774	한화케미칼	-785
SK네트웍스	1,583	하이트진로	-691
TIGER 200	1,551	SH에너지화학	-668
SK증권	1,375	KB금융	-664
삼성중공업	1,201	삼성엔지니어링	-59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주 수	순 감	금액
IT부품	581	반도체	-2,191
금속	537	금융	-1,904
화학	513	종합건설	-1,274
한진피앤씨	1,100	STS반도체	-2,233
파트론	624	한국토지신탁	-1,794
국순당	271	서희건설	-1,290
오픈베이스	228	파라다이스	-414
동국S&C	220	조아제약	-395
KH바텍	215	에스코넥	-376
코미팜	214	골프존유원홀딩스	-345
다음카카오	205	차이나그레이트	-315
에스에이엠티	204	해덕파워웨이	-294
솔리드	181	에스앤씨엔진그룹	-285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6/8(월)	6/9(화)	6/10(수)	6/11(목)	6/12(금)
외국인	9,449.5	20.5	-664.8	-74.1	-145.4	-196.2	-164.2	-84.9
기관계	-9,686.4	-1,176.8	-378.4	-15.9	-38.2	-85.5	-96.8	-142.0
(투신)	-6,285.5	-73.1	-75.8	20.4	0.3	-3.1	-35.1	-58.4
(연기금)	4,538.8	395.4	122.1	3.5	16.6	56.3	48.0	-2.3
(은행)	-449.5	-458.0	-13.2	3.6	9.1	-3.6	-2.3	-20.1
(보험)	-1,024.1	-351.0	-124.1	-53.8	-2.6	-38.5	-28.0	-1.2
개인	-99.2	1,104.0	984.7	67.6	162.0	279.3	254.1	221.7
기타	336.1	52.3	58.4	22.4	21.6	2.4	6.8	5.2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2	2013	2014	6/5(금)	6/8(월)	6/9(화)	6/10(수)	6/11(목)
KOSPI	1,997.1	2,011.3	1,915.6	2,068.1	2,065.2	2,064.0	2,051.3	2,056.6
고객예탁금	18,014.3	14,211.8	15,842.5	20,994.5	20,890.6	21,481.3	22,039.1	21,847.2
(증감액)	334.1	-3,802.5	1,630.7	156.6	-103.9	590.7	557.8	-191.9
(회전율)	26.7	29.9	34.0	49.9	44.9	44.7	47.2	52.6
실질예탁금증감	-13,998.7	-10,125.7	-2,121.1	42.4	-142.0	527.9	542.6	-88.7
신용잔고(KOSPI)	2,202.9	2,289.7	2,533.3	3,646.7	3,652.5	3,644.2	3,636.4	3,654.3
신용잔고(KOSDAQ)	1,709.5	1,893.1	2,537.4	3,890.9	3,875.4	3,876.9	3,881.8	3,895.8
미수금	1,241.0	929.0	1,176.0	213.1	183.6	147.4	150.3	148.1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6/5(금)	6/8(월)	6/9(화)	6/10(수)	6/11(목)
전체 주식형	74,558	-6,485	-890	-159	-182	-216	-129	58
(ex. ETF)		-4,294	40	-49	20	-36	-10	63
국내 주식형	57,732	-6,736	-678	-105	-181	-184	-137	66
(ex. ETF)		-4,544	252	6	21	-4	-18	71
해외 주식형	16,827	250	-212	-55	-1	-32	8	-8
(ex. ETF)		250	-212	-55	-1	-32	8	-8
주식 혼합형	9,447	-1,170	32	-48	-4	10	1	41
채권 혼합형	28,367	683	549	42	76	40	135	77
채권형	81,123	7,495	102	-95	-121	6	91	-46
MMF	111,519	28,471	2,158	-501	323	-3,823	-412	86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6/8(월)	6/9(화)	6/10(수)	6/11(목)	6/12(금)
한 국	8,615	22	-593	-66	-130	-177	-147	-74
대 만	5,908	-2,148	-952	-285	-115	-114	-288	-150
인 도	6,670	-475	-297	-115	-106	-76	-	-
인도네시아	336	-286	-187	-21	-77	-38	-51	-
태국	-421	-266	-118	2	-15	-36	-69	-
남아공	2,069	214	81	10	18	33	20	-
필리핀	491	-172	-63	-12	-28	-20	-4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4년말	6/5(금)	6/8(월)	6/9(화)	6/10(수)	6/11(목)	6/12(금)
회사채 (AA-)	2.43	2.00	1.99	1.99	2.01	2.04	2.00
회사채 (BBB-)	8.26	7.92	7.91	7.91	7.93	7.95	7.91
국고채 (3년)	2.10	1.74	1.73	1.73	1.77	1.80	1.76
국고채 (5년)	2.28	2.01	2.02	1.99	2.03	2.09	2.03
국고채 (10년)	2.60	2.47	2.48	2.43	2.47	2.53	2.46
미 국채 (10년)	2.20	2.41	2.38	2.44	2.48	2.38	-
일 국채 (10년)	0.33	0.49	0.49	0.46	0.51	0.54	-
원/달러	1,099.30	1,111.10	1,123.30	1,118.90	1,108.20	1,108.80	1,114.70
원/엔	920.30	885.55	896.99	891.46	902.59	897.31	902.08
엔/달러	119.45	125.47	125.23	124.38	122.78	123.57	123.57
달러/유로	1.22	1.11	1.12	1.12	1.13	1.12	1.12
DDR3 1Gb (1333MHz)	1.34	1.20	1.20	1.19	1.19	1.19	-
DDR3 2Gb (1333MHz)	2.21	1.69	1.68	1.67	1.66	1.66	-
NAND Flash 16Gb (MLC)	2.18	1.72	1.72	1.72	1.72	1.72	-
CRB 지수	233.24	223.10	223.60	227.01	228.77	225.88	-
LME 지수	2,907.6	2,715.5	2,724.0	2,731.9	2,750.5	2,700.8	-
BDI	782	610	610	612	618	629	-
유가 (WTI, 달러/배럴)	53.61	59.13	58.14	60.14	61.43	60.77	-
금 (달러/온스)	1,185.50	1,164.60	1,172.80	1,177.40	1,188.50	1,178.5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8	9	10	11	12
日> 1분기 GDP QoQ (1.0%, 0.7%, 0.6%) 中> 5월 수출 YoY (-2.8%, -4.0%, -6.4%) 5월 수입 YoY (-18.1%, -9.6%, -16.2%) 독일> 4월 산업생산 MoM (0.9%, 0.6%, -0.5%)	中> MSCI EM 지수 중국 본토 편입 여부 심사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2%, 1.3%, 1.5%) 유럽> 1분기 GDP QoQ (0.4%, 0.4%, 0.4%)	韓> 5월 실업률 (3.9%, 3.7%, 3.7%) 日> 4월 기계수주 MoM (3.8%, -2.1%, 2.9%)	韓> 금통위 금리 결정 (1.5%, 1.5%, 1.75%)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中> 5월 소매판매 YoY (10.1%, 10.1%, 10.0%) 5월 광공업생산 YoY (6.1%, 6.0%, 5.9%) 美> 5월 소매판매 추정 MoM (1.2%, 1.2%, 0.0%)	유럽> 4월 산업생산 MoM (n/a, 0.4%, -0.3%) 日> 4월 광공업생산 MoM (1.2%, n/a, 1.0%) 中> 5월 M2 통화공급 YoY (~15일) (10.8%, 10.4%, 10.1%) 5월 신규대출 (~15일, 십억위안) (900.8, 850.0, 707.9)
15	16	17	18	19
韓> 상하한가 변동폭 30% 확대 美> 5월 광공업생산 MoM (n/a, 0.2%, -0.3%)	美> 5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100, 1,135) 독일> 5월 최종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0.7%, 0.7%) ZEW 서베이 예상 (n/a, 38.5, 41.9)	美> FOMC 통화정책회의 유럽>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0.3%, 0.3%) 日> 5월 무역수지(십억엔) (n/a, -252.4, -55.8)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유럽>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美> 5월 소비자물가지수 MoM (n/a, 0.5%, 0.1%)	
22	23	24	25	26
美> 5월 기준주택매매	美> 5월 내구재주문 5월 신규주택매매 中> 6월 예비 HSBC 제조업 PMI 유럽> 6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독일> 6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日> 6월 예비 마켓 제조업 PMI	美> 1분기 GDP QoQ 독일> IFO 기업환경지수		日> 5월 실업률 5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美> 6월 미시간대 소비자지수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